

“효성, 고객 친화·데이터 중심 경영해야”

창립 54주년 맞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100년 기업' 포부



효성그룹이 3일 창립 54주년을 맞아 '100년 기업'을 이룩하기 위해 고객 친화적 경영과 데이터 중심의 경영을 강조했다.

이날 효성그룹에 따르면 조현준(사진) 회장은 지난 2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경영 환경을 언급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함께 신사업 개척을 주문했다.

조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은 전통적 비즈니스에 머물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며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업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언급하면서 고객 친화적(VOC, Voice of Customer) 경영과 데이터 중심의 경영을 강조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이제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특

글로벌 기업, 코로나 팬데믹 계기 IT 기반 신사업 개척 불확실한 미래 굴하지 않고 힘 모아 새로운 길 만들 것

이점의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VOC와 데이터 중심 경영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게 조 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조 회장은 “마·중 패권 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위기로 경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치밀하고 군더더기 없는 데이터 중심 경영이 자리를 잡아야 VOC 경영도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성은 지난 1966년 11월 3일 만우 조흥제 회장이 그룹의 모태가 된 동양나이론을 설립한 이후 올해 창립 54주년을 맞았다. 현재는 스파덱스-타이어 코드 등 세계 1위 제품을 중심으로 매출의 80% 이상을 수출에서 일으키고, 세계 30개국 100개 이상의 제조 및 무역법인을 운영하는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효성그룹은 최근 데이터센터 사업에 출사표

를 던지고, 탄소섬유와 액화수소 등 미래를 위한 사업 영역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열사인 효성중공업은 지난 8월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효성티앤씨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생활의 변화에 따라 스파덱스 초격차 확대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에도 나선 게 대표적인 사례다.

조현준 회장은 “승자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문제 주변을 맴돌며, 승자는 눈 쌓인 별판을 밟아 길을 만들고 패자는 쌓인 눈이 녹기만을 기다린다”며 “불확실한 미래라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 문제 속으로 뛰어들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이어 “함께 힘을 모아 '백년 기업 효성'을 반드시 이룩해 내자”고 덧붙였다.

한편 효성그룹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창립기념일 행사는 열지 않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AI로 보이콧 막는다 광주은행 시스템 구축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보이콧 금융사기를 예방한다.

3일 광주은행은 인공지능(AI) 모델을 결합한 '통합 인공지능 FDS(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구축,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FDS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 접속 정보,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 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보이콧피싱과 대포통장 등 새로운 사기 수법이 유희적으로 대처, 이용자의 일반적인 행동과 다른 금융거래를 잡아내 차단하는 보안 방식이다.

통합 인공지능(AI) FDS는 이러한 FDS 시스템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고도화했다.

광주은행은 AI FDS 시스템 도입으로 정상 거래를 금융사기로 잘못 판단하는 과탐률 비율을 대폭 낮추고, 정탐률을 10배 이상 높여 특이 거래와 인종 서비스 대응 시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광주은행은 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 2018년 7억원, 2019년 13억원, 올해는 10월까지 12억원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남상무 광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됨에 따라 광주은행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상 거래 분석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이콧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내가 미스터트롯 팬” ‘큰손’ 5060

6~8일 광주 공연 앞두고 문화·유통가 판촉전 한창

“부모님이 좋아하는 임영웅 응원봉 사보려고요.”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TV예능 '미스터트롯' 경연자들의 광주공연(6-8일)을 앞두고 문화·유통가 판촉전이 한창이다.

주 소비층은 트로트 '팬덤' 문화를 만들어낸 50-60대 여성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이들 구매층이 대형 유통가에서 '큰손'으로 작용하고 있다.

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6일 동안 9층 특설매장에서 총 5억원 규모 '미스터트롯' 굿즈 팝업스토어(임시매장·사진)를 운영한다.

상품은 총 20가지로, 가장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단연 응원봉(3만8000원)이다.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을 가진 이 응원봉은 공연 때 공연자를 상징하는 색상에 맞춰 이른바 '패장'을 위한 도구로 쓰일 예정이다.

가장 값이 나가는 상품은 7만2000원 상당 소주잔 세트이며, 후드티 6만원, 열쇠고리(키링) 2만원, 부채 1만5000원, 휴대폰 지지대(그립톡) 1만5000원 등 다양하게 매대를 채웠다. 이 매장에는 임영웅, 장민호, 정동원, 영탁 등의 실물 입간판이 세워진 별도 포토존도 마련됐다.

롯데백화점이 지난 달 말 부산공연에 맞춰



열흘 동안 센터시티점에서 운영한 임시매장에는 1000명 넘는 고객이 '미스터트롯' 상품을 사갔다.

1인당 평균 구매금액은 4만8000원 정도로, 부산 기획전 총 매출은 5000만원이 넘었다.

매장에서 만난 안미연(22·광주시 북구 중흥동)씨도 부모님께 관람권과 함께 응원봉 등 관련 상품을 선물할 계획이다.

안씨는 “어머니 생신을 앞두고 광주공연을 가가스로 예매했다”며 “공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도록 응원봉과 쿨쿠션(방석)을 샀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행사 기간 동안 구매고객 중 2명을 추첨해 총 4장의 공연 관람권을 선물할 예정이다.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쿠폰팩트 또는 포토카드, 마스크팩을 선착순 증정한다.

한편 지난 달 22일 개봉한 장편영화 '미스터트롯:더 무비'를 본 광주·전남 관객은 2일 기준 3200명을 기록했다.

/백희준 기자 bhj@



높이 조절되는 책상 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8층 '카레클린트' 매장에서 높이 조절이 가능한 모션데스크를 직접 시연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43.31 (+43.15)	↑ 금리(국고채 3년)	0.980 (+0.009)
↑ 코스닥	818.46 (+15.51)	↑ 환율(USD)	1134.10 (+0.50)

5천만원 이하 보증서 발급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농신보 '비대면 신용보증 플랫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내년부터 5000만원 이하 보증서 발급 등 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신보는 영업점 방문 없이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신용보증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서명으로 간이신용조사 대상인 5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에 대해 보증서 발급 및 기한연장 신청 등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농신보는 국내·외 기업 업무의 디지털 전환 사례 등을 분석한 연구 용역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농신보는 내년 이후 '비대면 신용보증 플랫폼' 등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할 예정이다.

농신보는 농협중앙회가 위탁 관리하며,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972년 설립됐다. 11월 현재 총 141조원의 보증지원을 했다. 문의 02-2080-660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저자 이진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 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